



바른 경제관 돈의 가치 소재로 동화화 기초 경제이론·법칙 등 쉽게 풀어

—「돈의 여행」펴낸 이슬기씨

이 책 그 사람

‘경제동화’라는 낯선 이름과 함께 우리동화문학관의 짜여진 틀과 소재의 한계를 뛰어 넘은

‘신사교’의 측면이 높은 평가를 받은 「돈의 여행」(지경사)을 내놓은 이슬기씨(41·은석국민학교 교사). 애초에는 도덕과목에 나오는 덕목을 예화식으로 재미있게 써보고자 했는데 이미 여러군데서 작업이 진행중이라 시선을 경제쪽으로 전환했다.

“아이들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올바른 경제관과 진정한 돈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면서 외제학용품 선호나 아이들에게까지 번진 과소비 풍조등을 비판하고자 했죠”

그러나 내심 기존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신의 시도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데, 초입지에서 같이 근무하던 여선생님의 신춘문에 당선에도 별반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그가 동화에 맛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두번째 부임한 학교에서 만난 작가가이기도 한 동료선생님과 교류에서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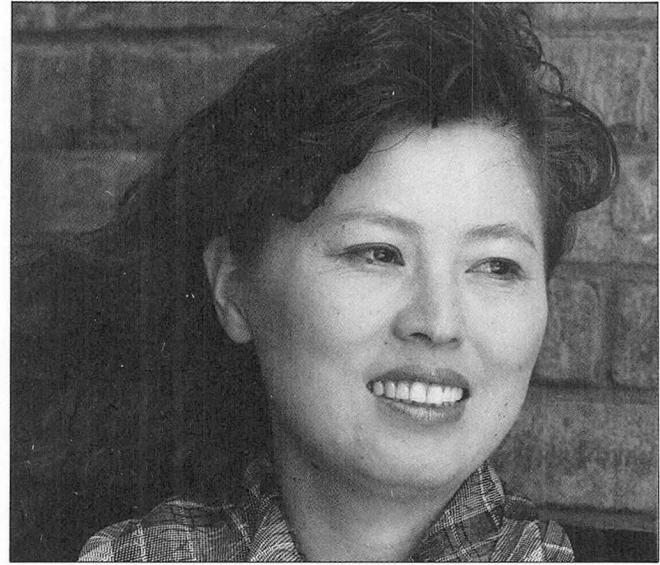
“가치관 정립과 선악에 대한 판단력 기르기가 주된 목적인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야기’는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글쓰기와 가르치기가 이야기라는 고리로 자연스럽게 맞물리더군요. 작품을 쓰다가 막히면 아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작품을 읽어주다 보면 얼켰던 이야기의

실타래가 쉽게 풀립니다”는 얘기. 교육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아이들과의 생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싱싱한 그들의 모습을 작품에 담을수 있어 오히려 재밌기만 하다는 그는 20년을 교직에 몸담아 오면서도 병아리교사 시절의 패기와 정열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많은 교사들이 사명감과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원인이 “남자선생님의 절대부족과 남자아이들의 여성화라는 기형적인 교육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는다.

“전래동화에 묻어 있는 선인들의 과학관에 대한 동화를 쓸 작정입니다. 인구증가와 공해로 해저도시가 가까운 장래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토끼의 간」이나 「개와 고양이의 구슬」등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우주관등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아마 비디오나 컴퓨터, 타임머신의 이미지도 있을것 같아서 자료수집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조상들의 뛰어난 지혜와 과학적인 상상력을 강조하며 요즘 들어 창작동화집이 부쩍 많이 읽히고 있음을 반가워 한다. 하지만 부모나 교사 모두 우리가 쓴 추리, 공상 등의 동화는 기피하고 있어 이러한 점이 한국 동화의 다양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생의 반을 아이들과 뒹굴며 이야기하고 웃고 사랑하며 지낸 탓인지 모든 思考의 플러그가 아이들에게 꽃혀 있는 그는 키는 커버렸고 안경을 썼지만 언제나 동심을 갖고 사는 피터팬인 셈이다.

—최태원 기자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애정 도시의 뿌리로서 농촌생활 묘사

—「똥똥이 안경」의 작가 조한순씨

이 책 그 사람

언제부터인가 어린이들의 세계마저 어른들처럼 이기적이고 낭비적인 삶에 침윤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조차 ‘작은 것’에 대한 애정보다는 몰랑주의에 휩쓸리게 되었고, 우리 이웃네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배타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훈적인 동화를 쓰고 싶지 않지만 따뜻한 인간상을 그리는 작품을 많이 쓰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에 보다 큰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최근 자신의 첫번째 창작동화집 「똥똥이 안경」(창작과비평사)을 펴낸 조한순씨(37)는, 이번 작품집에는 도시생활에 찌든 어린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화들을 주로 모았다고.

“요즘 어린이들의 정서는 지나칠 정도로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떠받쳐 주는 두 기둥인 도시와 농촌 모두를 바라보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이같은 문제의식 아래 쓴 대표적인 작품이 「새친구와 봄비」. 서울서 전학온 한 아이가 농촌의 삶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 푹푹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은 저희집 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예상되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큰아이를 시골로 전학시켜 그곳의 삶을 온

몸으로 경험하게 했던 거죠. 작품에 묘사된 만큼이나 성공적으로 농촌삶에 적응했고, 아이에게도 매우 인상깊은 체험이 되었습니다.”

전학가는 큰 아이를 주위 친구들이 부러워하면서 한 말이 “이제 학원다니지 않아서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밝히는 조한순씨는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얼마나 왜곡된 교육풍토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작품집을 통해 도시 삶의 뿌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86년 「아동문예」 신인문학상과 8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각각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조한순씨는 “결코 작가가 되겠다는 욕심”으로 동화를 쓰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끊임없이 저에게 무언가를 물어올 때마다 다른 어머니들처럼 당혹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세상이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어느날 불현듯, 이것을 이야기체로 쓰면 동화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작품을 쓰기 시작한 거죠” 작년 「하늘로 열린 지붕」이라는 시나리오로 방송작가 신인상을 수상하기도한 조한순씨는

“아동문학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텔레비전 매체에 보다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서와 현실에 맞는 어린이드라마나 창작인형극이 일천한 현실을 감안, ‘건강한’ 아동드라마를 열심히 써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권우 기자



동심의 렌즈로 포착한 '엄마'의 사랑 아이들이 노는 모습 모두가 詩

— 「어머니의 눈물」의 동시작가 鄭斗理씨

이 책 그 사람

“일년 열두 달에서 / 5월 한 달을 빼내어 보아라 /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둡고 쓸쓸해질까 / 5월은...”

(동시집 「혼자있는 날」 중에서)

5월에 떠올려보는 아동문학가 중에는 으레 鄭斗理(44)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주부 동화작가가 있다. 근자엔 몸이 아파 몇달을 꼼짝없이 누워있어 ‘나무도 풀도 꽃이 피는’ 이 5월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며 「어머니의 눈물」(아동문예)과 「혼자 있는 날」(대교출판)을 부끄러이 내민다.

어린이 동시집으로는 표제가 조금은 예외인 「어머니의 눈물」은 61편의 시가 모두 5행으로 이뤄진 5행시집으로, 왜 하필 5행이냐는 질문에 운율과 호흡이 우선 자신에 맞고 3행이 아닌 5행 정도면 함축된 말로 아쉬움없이 다 말할 수 있는 길이어서라고 답한다. 이보다 약간 더 늦게 펴낸 「혼자있는 날」은 신작시 몇편과 이전의 그의 동시집 「꽃다발」 등에서 작품을 간추려 모은 것이다.

그가 아동문학가로 어린이들을 위한 동시와 동화를 짓기 시작한 것은 문단 데뷔 훨씬 이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79년 딸아이의 커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써온 「유리안나의 성장」으로 첫시집을 묶고 82년 한국문학 시부 신인상으로 정식 데뷔한 그가 아동문학에 발 딛게 된 것은 “딸에게 엄마(나)의 글을 읽고 싶다”는 소박한 욕망에서였다.

“문학작업이 다 소중하고 어렵지만 아동문학은 특히나 맑은 마음과 깨끗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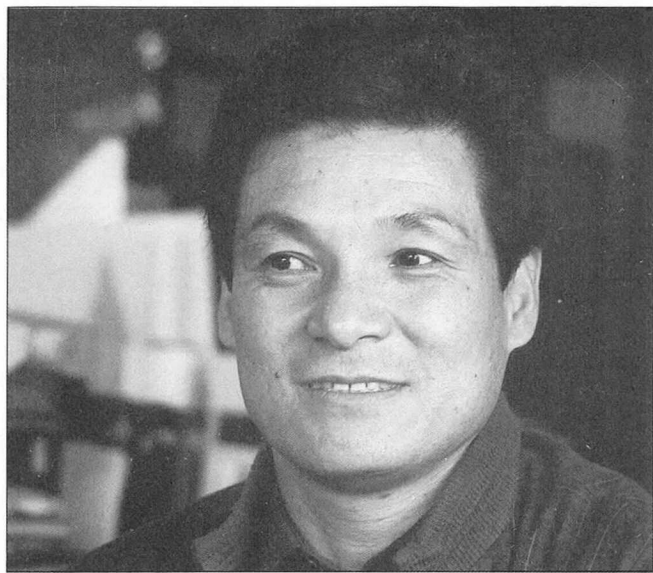
시인보다 아동문학가로 불리는 것이 훨씬 자랑스럽다는 그는, 그러나 정작 자신의 시를 읽어본 딸이 “엄마의 시는 교과서의 시와 다르고, 어렵다”는 등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자 다소 섭섭했다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그는 아동문학은 특히 아이를 낳고 길러본 ‘엄마’들이 많이 동참해야 할 작업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책을 안읽는 요즘 세대에 글을 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간혹 절망스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문학가들이 책을 내는 것이 정작 ‘아이들의 관심 밖에서’ 자신들끼리 읽고 나눠보고 마는 ‘어른들의 행사’일 뿐은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의 이같은 자책은 아이들을 현란하게 유혹하는 TV나 전자오락 등으로부터 과감히 책으로 유인할 만큼 재미난 글을 못쓴 자신과 같은 아동문학가들에게 우선 책임이 있다고 순서를 매긴다.

최근까지 2년여 동안 모화장품회사 사보에 유아대상의 동화를 써온 그는 오랜 기간 시를 쓰며 언어를 함축하던 버릇 때문에 긴 소설 쓰기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작은 아이들이 움직이며 노는 모습 하나도 모두 詩가 될 것 같다”는 詩集후기처럼 “누구나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누구나 낼 수 없는 목소리로 쓰고 싶다”고 소망을 내보인다.

— 정혜옥 기자



‘어른’이 얘기하는 동심의 언어 그림과 사진 어우러진 단상들 모아

— 「모래알 한가운데」 펴낸 정채봉씨

이 책 그 사람

그야말로 ‘어릴 적’ 한 권의 동화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쓴 작가가 자기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한 사람의 ‘어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기억이 있는가? 아마도 대개는 나름의 오묘한 분위기에 빠져 막상 작가에게까지 관심을 돌릴 기분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면 동화작가 또는 아동작가라는 자체가 다른 분야의 작가들에 비해 자신을 작품 속에 ‘은둔’시키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어린이들은 ‘불순물’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다.

연전에 출간된 어느 작품집의 발문에서 “저 친구의 내면 어느 구석이 그토록 아름답고 맑은 동화를 쓰게 하는가”라는 놀라움을 가까운 친구로 하여금 품게 할 정도로 철저한 생활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는 정채봉씨(45, 샘터사 편집부장). “모든 작가가 실생활과 작품세계라는 이중의 내면세계를 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아동작가는 비록 그 과정을 거쳐왔다고는 하지만 현재 자신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와 상상력의 폭과 깊이를 제한하는 여러 장애물들을 끊임없이 넘어셔야 합니다.”

’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래 「물에서 나온 새」 「초승달과 밤배」 등의 작품집으로 어린이는 물론 ‘우연히’ 작품을 대하게 된 성인들까지도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했던 그가 얼마전 「모래알 한가운데」(동아출판사)라는 ‘명상언어집’을

출간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응축된 언어를 통해 독자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싶었다”는 그의 이번 작품집은 전문가에 의한 수준높은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작품까지 어우러져, 함께 글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색.

‘망원경과 현미경’ ‘상처없는 새가 어디 있느냐’ ‘어부와 아이의 대화’ 등 20편의 단상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요즘 쏟아지고 있는 ‘지면 메꾸기용’ 삽화·사진처리와는 구별되는, 내용전달 효과를 상승시키는 의미있는 점목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종의 ‘방향전환’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그는 이른바 ‘어른을 위한 동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평소 동화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작가의 책임이지요. 실질적으로 어른, 특히 어머니가 먼저 동화책을 읽고 감동을 느끼게 되면 그 감동이 바람직한 아동독서교육으로 직결된다고 봅니다.”

제대 후 조카방에서 우연히 읽게 된 「어린왕자」를 통해, 뒤늦게 “마약기운 같은 환희”를 느끼게 되면서 원래 단편소설을 쓰려던 계획이 수정되었다는 그는, 마치 늙은 배추씨라기 같은 당시의 창작동화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승부욕이 생기더라고.

비무장 지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구상중인 그는 통일 후까지도 계속 읽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빠 사무실로 돌아선다.

— 정소연 기자